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등반은 무상(無償)의 행위’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등반가 리오넬 테레이(Lionel Terray)가 남긴 알피니즘에 대한 금언(金言)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수직의 거봉을 오르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몸짓이라는 얘기다.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 순수성이야말로 등반의 위대함이자 매력이다. 얻는 것이 있다면 무한 자유와 절대 고독, 불확실성을 넘어선 성취감뿐이다.

테레이는 말한다. “알피니스트는 명예를 기대하지 않으며 관중의 박수갈채로 흥분하지 않는다. 자신의 파트너 외에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고독을 느끼고, 정적이 흐르는 산에서 자신과 싸우며 곤란을 이겨 내고, 자신 속에 잠재된 힘과 용기를 느끼는 것으로 희열을 맞는다.”(‘무상의 정복자’, 김영도 번역)

히말라야에는 높이 8000m 이상의 거봉이 14개 있다. 이들을 하늘의 별에 빗대어 ‘14좌(座)’라고 부른다. 이들 14좌를 인류 최초로 모두 오른 산악인은 라인홀트 매스너(Reinhold Messner)다. 그는 나이가 산소통에 의지하지 않고 제 호흡만으로 이들 봉우리를 완등해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영역마저 무너뜨렸다. 하지만 매스너는 그의 14좌 완등을 기리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메달을 수여하려 하자 거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등반에서는 싸우는 상대도

무상(無償)의 도전, 지역의 자산으로

없고 심판도 있을 수 없다. 단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뿐.”

광주·전남에도 초인적 의지로 산악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산악인들이 있다. 그 선봉에 있는 이는 지난달 7일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우뚝 선 김홍빈(55·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골핑 홍보이사) 대장이다. 그는 이번 등정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3좌의 정상을 밟았다. 마지막 남은 브로드피크(8047m)만 오르면 장애인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14좌 완등을 달성하게 된다.

산악사 새로 쓴 김홍빈·미곤

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극한의 도전을 이어 가고 있는 그의 행보는 극적이고 경이롭다. 촉망받는 산악인이었던 그는 지난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단축 등반 중 사고로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그 이후 웃을 입는 것은 물론 용변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동안 실의와 좌절에 빠져 방황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며 등반이라는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에게 다시 내밀었다. 첫 목표는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이었다. 1997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에베레스트(8848m), 남극의 빈슨 매시프(4897m)까지 일곱 개 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장애 산악인 최초의 쾌거로,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대장은 동시에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도 도전했다. 2006년 파키

스탄 가셔브롬Ⅱ(8035m) 등정을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13개 봉우리를 올랐다.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이처럼 놀라운 도전과 성취를 이어 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담금질이었다. 그는 장애인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와 사이클 선수로도 활약하면서 많은 메달을 따는 등 평소 치열한 훈련으로 고산 등반에 필요한 체력을 다졌다.

그런가하면 김미곤(47·한국도로공사 산악팀) 대장은 지난해 7월 9일 ‘산중의 왕’ 낭가파르밧(8125m) 정상에 올라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했다. 1994년 서강정보대(현 서영대) 산악회에 들어가면서 등산에 입문한 그는 1998년 알프스 3대 북벽에 이어 마나슬루(8163m) 원정에 나서면서 히말라야와 인연을 맺었다. 2000년 초오유(8201m) 정상을 오르며 히말라야 14좌 레이스에 시동을 건 김 대장은 18년 만에 완등을 이뤄 냈다. 그 과정에서 2007년에는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와 로체(8516m)를 연속 등정해 ‘철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극한서 꽃피운 희망과 용기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죽음의 지대’에서 거둔 그들의 성과가 값진 것은 국토의 70%가 산지이면서도 높이 2000m가 넘는 봉우리 하나 없는 자연환경에서 끊임없는 자기 단련을 통해 이뤄 낸 것이기 때문이다. 척박한 것은 자연환경만이 아니었다. 주변의 이해 부족도 걸림돌이었다. 해외 원정에 필요한 경비 마련의 어려움 또한 끝없이 이들의 발목을 잡곤 했다. 이런 탓에 후원을 받기에 유리

한 수도권 등지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라는 선후배들의 권유에도 이들은 끝까지 지역을 지키며 ‘슈퍼 알피니즘’을 꽃피웠다.

두 사람은 그동안 수십 차례의 원정대를 각각 이끌며 등반대장과 원정대장을 도맡아 왔다. 이들의 이름 뒤에 ‘대장’이라는 칭호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이유다. 이들은 또한 자일(Seil) 파트너로서 가셔브롬Ⅱ와 에베레스트, K2(8611m) 등의 정상을 함께 밟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왔다.

‘무상의 행위’라지만 이들이 이룬 성취는 올림픽 메달이나 세계 대회 입상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김홍빈 대장은 마지막 남은 브로드피크 등반을 내년에 북한 등지의 장애인들과 ‘평화의 원정’으로 꾸리는 꿈을 꾸고 있다. 14좌 완등 이후에도 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산악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미곤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겨울철 등정이 이뤄지지 않은 K2(8611m) 동계 세계 초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에선 절망을 딛고 불굴의 도전을 이어 온 김홍빈 대장의 ‘인간 승리’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 미래 세대의 귀감으로 삼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들은 말한다. “산을 정복하려는 것도 영웅이 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의 도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탐험은 인류 문화의 원동력이었다. 지역 산악인들의 도전과 성취 역시 지역 사회가 이어 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담대한 발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社說

항일 사적지 관리 부실 부끄럽지도 않나

광주·전남 지역 주요 항일 사적지들이 훼손되거나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들이 올해 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태껏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광복절을 사흘 앞둔 그제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항일 사적지 네 곳을 직접 둘러보았다.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장흥 해동사와 화순 충의영당 및 충산사, 광주 어등산 호남 의병 격전지, 곡성 오강사 등 점검 결과 네 곳 모두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나 이정표가 없어 찾아가는 것조차 녹록지 않았다. 일부는 문이 부서지거나 기와가 무너지고 철이 벗겨지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을사늑약에 항거해 의병을 일으킨 애국지사 문달환 선생을 모시는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충의영당 및 충산사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문들은 떨어져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장흥군

장동면의 해동사는 입구 기둥은 물론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본 건물 기둥까지 철이 벗겨져 있었다. 또 사당 앞 비석은 호박닝쿨로 가려져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다.

의병 면암 최익현과 조우식의 시체를 지내는 곡성군 오곡면의 오강사는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관리인에게 전화를 건 뒤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 기와가 무너져 있어 화장실도 노후화가 심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모두 129곳에 이르며 대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광복 74주년이 코앞인 데도 항일 사적지들이 지금까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국민들의 항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적지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훈처와 자치단체들은 보수와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으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지난해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시도 시청 평화의 소녀상 광장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8월 14일이 지난해부터 ‘기림의 날’로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결정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하다.

이날이 기림일로 정해진 데는 사연이 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많은 사람 앞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이후 전국의 생존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부대로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회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나라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과 연대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때다. 피맺힌 할머니들의 기억을 평화와 인권 증진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은펜칼럼



한국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나라 위상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세계에서 작은 나라(면적 107위, 인구 28위)에 속하지만 지난해 GDP 세계 12위, 1인당 GDP 29위, 수출은 7위(일본의 82%)를 기록했다.

일본은 우리 면적의 3.8배, 인구 2.5배, GDP 3배이며 수출 1.2배(세계 5위)다. 그런데 일본이 세계 GDP 3위의 경제 대국답지 않게 치졸하고 일방적인 경제 전쟁을 도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후 국내 반도체 생

대한민국, 새 도약의 기회

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에 맞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의식의 소비자 운동이다.

사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는 단순한 한일 간 갈등이 아니라,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 군국주의를 유지하려는 자와 군국주의를 청산하려는 자의 싸움이다. 그들은 우리를 침략해 35년을 강점 지배했고 인적·물적 자원을 철저히 침탈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신들 턱 밑까지 추격하자 21세기 산업 핵심인 반도체 소재를 타격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2월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수출 규제가 아니라 경제 보복, 그리고 경제 전쟁을 넘어 이제 ‘경제 침략’으로 그의 미가 확대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

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전자 제품 생산에 큰 혼란이 생긴다. 세계 D램 반도체 생산의 70%,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국내 생산에 이상이 생기면 세계 주요 전자 제품 생산이 위축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3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책임 때문인지 지난 8일엔 수출 규제 대상 일부를 허가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의 기술 격차는 크다. 미국의 소재 기술이 100점이면 일본 98점, 한국 78점 수준인데, 우리와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2.6년이며 중국과는 비슷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도 중국은 4차 산업 혁명의 쌀로 통하는 ‘반도체 굴기’를 위해 2014~2020년 동안 총 100조 원, 화웨이도 자체 반도체 칩 개발에 5년간 약 5147억 원을 투자한다.

요즘 한일 무역 분쟁에도 미국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환을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갑작스런 유향 제스처는 명분상의 술책일 수 없으니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대응을 바가며 적절하게 대응 카드를 써야 한다.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함께 소재·부품 산업에 국산화 바람이 불었다.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등 특단 대책을 발표했고 중소기업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패는 결국 판로에 달려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조기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는 강력한 협력 모델이 구축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도발이 우리에게 큰 위기지만, 한편으론 기술 자립의 기회다. 이제 일본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입 다변화와 기술 국산화에 전력투구하여 ‘탈일본’으로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치자 향이 주는 의미

면서 주위에 떠 있는 무수한 심들을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8월 초 열대와와 폭염은 여덟이 찾아왔다.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 채 저녁상을 물린 우리는 마당에 나가 모기장을 치기까지 합의했다. 모기향을 피우고 베개를 베자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그때 산들바람을 타고 어디에선가 꽃향기가 코끝에 전해졌다. 도시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냄새였기에 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묻자 아버지는 치자꽃 향기라고 했다. 지인이 한 그루를 주기에 마당 한쪽 귀퉁이에 작년에 심었다는 것이다.

핸드폰을 열어서 치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추위에 약한 난대수종으로 겨울 기온이 낮은 내륙에서는 동해를 입기에 섬과 해안 지방이 적지라는 설명이었다.

매년 6월과 7월에 하얀 색의 꽃을 피우는데 달콤한 향기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그리고 꽃말은 ‘한없는 즐거움’이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자들이 다니는 길가에 예기동백(산다화)이 있는데 겨울철에 은은한 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거의 모든 나무가 새 생명을 준비하려고 동면에 들어가는 때에 산다화는 치자처럼 강한 향은 아니지만 ‘좋은 냄새를 오랫동안 선사한다’고 말했다. 만물이 잠든 겨울에 붉은 색의 꽃을 피운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까지 발산해 주는 산다화 자랑을 어머니는 계속했다.

얼마 전에 연수를 받으면서 강사로부터 우주의 중심은 분명 인간인데 너무 쫓겨며 사는 나머지, 자연을 무시하고 있지

나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고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휴가철, 고향에 내려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람결에 전해지는 치자 향을 맡으면서 나는 저 자연물처럼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한없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여름밤의 치자꽃 향기는 지나온 삶을 반성케 해주었기에 있을 수 없는 밤이었다.



최홍길 서울 선교회 교사

나는 휴가철이 되면, 반드시 부모가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올 여름에도 고향인 자은도를 찾았다. 이제는 어느 때처럼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아도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올 4월에 개통된 천사대교의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총 연장 10.8km 이기에 시속 60km 이내로 천천히 주행하

無 等 鼓

요즘 유행하는 ‘꼰대 판별법’이 있다. “우리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꼰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꼰대 판별법에 의하면 386세대들도 꼰대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386세대는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다. 이들이 30대이던 1990년대 만들어진 말로, 50대가 된 지금은 이들을 가르켜 586이라고 부르지만 간단하게 ‘86세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386세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크게 들린다. 보수 우익쪽에서 시작된 386세대 비판론이 윤리적 우월감과 이념서 일부 진보 진영까지 확산되고 있다. 출판계만 보더라도 386을 비판하는 신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386세대 유감”에서 30~40대 저자들은 386을 “잘 팔아먹고 헬조선 만든 세대, (후배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 무능한 꼰대 집단…”이라고 혹평한다.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중산층이 됐고 IMF 외환위기 파고도 피해 간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면서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훈장 삼아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의 네트워크를 사회 전 분야로 확장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세대”라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386에 의한, 386을 위한, 386의 나라라는 것이다.

386 운동권 출신인 민경우씨의 지적도 날카롭다. 그는 ‘평등의 역습’이란 책에서 386은 평등교육을 말하면서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고 부당선 투기를 좌약시하면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며 이중성을 지적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황혜화 씨는 며칠 전 칼럼에서 ‘86세대 대부분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윤리적 우월감과 이념서 일부 진보 진영까지 확산되고 있다. 출판계만 보더라도 386을 비판하는 신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386에 대한 날선 비판은 민주화 수혜를 독식한 일부 권력층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천운을 타고난 386들이라면 불운한 뒷 세대에겐 “우리 때는 안 그랬다”며 무작정 노력을 강조하는 꼰대는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